

파크골프 참여자의 기본심리욕구가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 -참여동기의 매개효과와 진지한 여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보성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The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Flourishing in Park Golfer -Mediating Effect of Participation Motives and Moderating Effect of Serious Leisure-

Bo-Sung Kim
Dept. of Tourism Management, Mokp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파크골프가 참여자들의 플로리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였다. 광주·전남 지역의 파크골프 이용자 대상으로 회수한 유효 설문지 382부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변수, 참여동기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2변수, 진지한 여가와 플로리싱은 단일 변수로 측정하였다. 첫째, 자기결정이론을 적용하여 기본심리욕구와 참여동기가 직접적으로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은 플로리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참여동기인 내적 동기, 외적 동기도 모두 플로리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기본심리욕구가 충족이 되면 참여동기도 강화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기본심리욕구의 유형별, 참여동기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참여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본심리욕구와 플로리싱 간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여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율성의 경우 유의한 조절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플로리싱을 개선시키지만 참여동기의 촉진을 통하여 플로리싱 개선의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고, 진지한 여가 활동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유능성이나 관계성보다는 자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파크골프 경영에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확인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determine whether park golf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flourishing of participants. The data of 382 valid questionnaires completed by park golf participants in Gwangju and Jeonnam were analyzed.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1) Self-determination theory-based analysis showed basic psychological needs, such as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and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es have a positive effect on flourishing. 2) The analysis also showed that participation motives were strengthened when basic psychological needs were satisfied. 3) The mediating effects of participation motives were verified, and 4) autonom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The main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satisfying basic psychological needs improves flourishing and that its beneficial effect on flourishing can be strengthened by enhancing participation motives. In addition, the study shows that participants who treat park golf as a serious leisure activity need a marketing strategy that can satisfy autonomy rather than competence or relatednes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Cooperative?) Society.

Keywords : Park Golf, Flourishing, Basic Psychological Needs, Participation Motive, Serious Leisure, Self-determination Theory

*Corresponding Author : Bo-Sung Kim(Mokpo Univ.)

email: kimhc9330@naver.com

Received April 9, 2024

Revised May 20, 2024

Accepted June 7, 2024

Published June 30, 2024

1. 서론

여가가 웰빙(well-being)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은 많은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1]. 여가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행복의 원천이 되기도 하면서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동인이다[2]. 사람들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만족, 긍정적 기분 상태, 스트레스 감소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3]. 여가활동에는 예술과 문화, 취미, 스포츠, 사교, 자원봉사, 자연에 기반한 활동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4], 파크골프도 하나의 여가활동으로 볼 수 있다. 여가활동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파크골프의 인기가 높아지는 현상의 원인을 파크골프 참여자가 얻는 신체적 및 심리적 혜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재훈 등(2020)은 파크골프 참여자가 헬스케어 여가인지를 높게 인지할수록 심리적 행복감을 높게 인지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5]. 이종하(2009)는 사회적 행복감을 초점을 맞추어 신체장애자들의 파크골프 참여가 사회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6]. 심창섭과 허진영(2006)은 노인의 파크골프 참여가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7]. 이선애(2010)는 12주간의 파크골프의 규칙적인 운동이 심리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심리적인 정신건강의 변화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8].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여가활동으로서 파크골프 참여자가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중 심리적 혜택인 플로리싱(flourishing)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파크골프 참여자들이 플로리싱을 증대시키는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SDT: Self-Determination Theory)을 적용하고자 한다[9]. 자기결정이론은 인간의 행동 변화에 대한 시작과 유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인간의 행동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동기의 유형을 정하고 이러한 동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이론이다[10]. 인간은 보상, 처벌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에서 주체성, 노력, 자기 결단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신념이 중심이 된다. 파크골프에의 참여 여부는 개인에게는 선택의 대상이므로 개인의 행동이 스스로 동기부여되고 스스로 결정되는 경우에 웰빙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

다. 이는 자기결정성과 웰빙 간의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파크골프 참여자의 웰빙을 분석하는 데 자기결정이론이 적합할 것이다.

자기결정이론에서는 내재적 동기를 갖기 위해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 등과 같은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 요소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있다[11]. 어떤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흥미에 의해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가치 있는 결정이었다고 지각할 때 자율성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11]. 자율성을 가지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소신으로 책임감 있게 이루어 내고자 하는 동기가 강화될 것이다. 개인이 유능성을 지각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내재적 동기 역시 커질 수 있다. 반면,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개인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환경이라면 내재적 동기 역시 감소하게 된다. 유능성이 지각되면 내적인 동기가 발전되고, 외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으로 자기통제가 촉진되고 자신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기성취적인 목표를 자율적인 결정으로 수행하고 유지할 수 있다. 관계성을 추구하는 개인은 본인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지할 때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여가를 적극적으로 즐긴다는 개념을 해석할 때에 효과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이다[12]. 진지한 여가는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단순한 시간 소비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여가활동을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진지하게 대하는 참여자의 여가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이론이다[13]. 파크골프 참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진지한 여가 개념을 적용할 필요성이 확인된다. 즉 진지한 여가를 위해서는 여가 활동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구가 요구되고, 참가자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참여하고 학습된 역량을 사용하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참여하는 동안 도전적인 상황을 해결하며, 여가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에 몰입하여 유지하여야 하는데[14], 이는 파크골프 참여자의 특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스포츠를 여가활동으로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높은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경기력 향상을 추구하고 이러한 참여 과정을 통해 자신이 참여하는 종목에 재미를 느껴 그 활동에 적극적이면서 지속해서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참여는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거나 해당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으로 진지한 여가 참여자로 규정될 수 있다[15].

본 연구의 목적은 파크골프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결정이론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①기본심리욕구나 참여동기가 개별적으로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 ②기본심리욕구가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③기본심리욕구가 참여동기를 매개하여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 ④기본심리욕구가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여가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기본심리욕구와 참여동기, 플로리싱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연구로서 후속 연구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플로리싱

웰빙 개념에 관한 연구들은 웰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웰빙은 쾌락적 관점[16]과 자아실현적 관점[11]에서 각각 측정되었다. 쾌락적 관점의 대표적 연구자인 Diener(1984)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행복하다고 느끼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 웰빙 척도를 개발하였다[17]. 반면 Ryff(1989)는 쾌락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웰빙은 부분적인 측정밖에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하면서, 인간의 성장 및 발달, 사회에서의 기능 수행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자기실현적 관점의 심리적 웰빙이 더 나은 측정도구라는 주장을 하였다[18]. 그러나 주관적 웰빙만으로는 정서적인 것만을 측정하고 있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고, 심리적 웰빙을 통한 측정은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측정을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플로리싱이 웰빙 측정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플로리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펼치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상태를 의미한다[19]. 플로리싱은 기존의 삶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좋은 감정(feeling Good)의 쾌락적 관점(hedonic view)과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자아실현적 관점(eudaimonic view)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2.2 기본심리욕구와 동기

자기결정이론 관점에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하

고 또 관계를 맺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기 때문에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과 같은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때 개인이 웰빙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11]. 특히 스포츠 영역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20]. 자율성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면서 자기 주도적이거나 개인의 결정력이 많이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 유능성은 개인이 여가활동을 경험할 때 주어진 사회적 환경과 자신의 역량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나 결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관계성은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들의 배려와 관심 또는 상호 신뢰를 통해 개발되는 감정이다. 이러한 기본심리욕구는 보상이나 외부 압력 등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0]. 기본심리욕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도가 스스로 결정한 것인지, 혹은 강요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위한 결정을 했다고 지각하면, 행동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확률이 높다. 파크골프 참여는 기본심리욕구의 하위 요인 중 자율성, 관계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운동 전과 후에는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21]는 파크골프 참여자에 대한 기본심리욕구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동기(motive)는 인간의 행동 이유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견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동기는 조절 수준에 따라서 크게 내재적(intrinsic) 동기와 외재적(extrinsic) 동기로 분류한다. 내재적 동기는 자기결정적인 동기에 의해 결정되는 내재적 조절에 의해서 행동이 시작되며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 행동하는 것으로 행동을 지속시키는 힘의 근원이 개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외재적 동기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행동하게 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압력으로 인하여 행동하게 되는데 이는 자기 조절이 외부에 있으며, 행동 자체보다 결과가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1]. 동기상태이론(motivational states theory)에서는 동기의 좌절 상태가 스트레스, 동기의 충족 상태가 웰빙이라고 본다[22]. 이는 동기와 웰빙 간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2.3 진지한 여가

진지한 여가 활동은 시간을 지속해서 투자하고 참여를 통해 다양한 경험 및 기술습득을 하며, 개인의 수준이 향상되며, 여가 전문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23]. 이러한

의미에서 진지한 여가는 현대인의 적극적인 여가 참여 형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다[24]. 진지한 여가의 높은 수준은 활동에 대한 참여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여가활동의 참여를 지속하는데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25]. 진지한 여가의 6가지 속성은 인내심(perseverance), 경력 발전(career development), 상당한 노력(significant effort), 지속적 혜택(durable benefits), 독특한 기풍(unique ethos), 강한 정체성(strong identification)으로, 이러한 6가지 속성은 일상적 여가(casual leisure)와 진지한 여가를 구별해주는 기준이 된다[26]. 진지한 여가의 속성은 파크골프 참여자에게도 공유되는 개념이다. 첫째, 인내심은 여가활동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로나 불안, 실패나 좌절 등과 같은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여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파크골프의 경기를 완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통과해야 하는 홀도 많다. 코스 설계 시 어려운 홀을 적당히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홀을 무사히 통과하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경력 발전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전문화된 지식과 훈련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일반 골프보다는 덜하지만 파크골프를 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파크골프 참여자들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지한 여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당한 노력은 지속적 여가활동을 위해 지식, 훈련, 기술을 자발적으로 습득하고자 상당한 수준의 개인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파크골프의 전문성에 대해 인지를 하는 참여자가 개인적인 열망을 가지게 되면 개인적으로 상당한 노력, 즉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지식과 경험을 얻고 특정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다. 넷째, 지속적 혜택은 지속적인 여가를 통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욕구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파크골프의 기능은 사회적, 개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진지한 여가활동으로 파크골프를 지속하면 이러한 혜택이 획득될 것이다. 다섯째, 독특한 기풍은 진지한 여가 참여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신념, 가치, 도덕적 원칙, 규범이다. 파크골프는 매너를 중시하는 여가 활동으로 그들만의 행동과 사고 방식을 가지는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한 정체성은 지속적인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을 여가 활동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여가참여자들이 자신들이 참여하는 여가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타인에게 자신의 여가에 관하여 스스로 표현하려고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3. 연구의 설계

3.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파크골프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결정이론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로리싱에 미치는 요인으로 기본심리욕구, 참여동기, 진지한 여가 등을 고려하였다.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분하였다. 자기결정이론을 적용하면 파크골프 참여자의 경우 기본심리욕구가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기본심리욕구와 동기가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진지한 여가의 조절효과를 포함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Fig. 1에서 원문자는 가설을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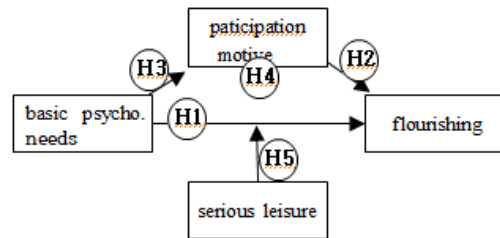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의 설정

3.2.1 기본심리욕구와 참여동기가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

Deci & Ryan(2000)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의 기본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심리적 안녕감이 증진된다고 하였다[11]. 남정훈 등(2010)은 기본심리욕구의 세 가지 욕구들이 심리적 안녕감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27]. 정우영(201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욕구의 지지가 심리적 웰빙, 삶의 만족과 같은 동기의 긍정적인 결과를 촉진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양 체육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는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고 하였다[20]. 진현주 등(2013)은 댄스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댄스 스포츠 참여자들은 스스로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율성과 관계성에 따라 선택하고 참여함으로써 행복감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8]. 정진영(2023)은 노인의 댄스에 대한 기본심리욕구가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긍정 자아존중감과 부정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9]. 박병훈(2023)은 실버세대 파크골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율성과 관계성만이 심리적 행복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 1을 설정한다.

[가설 1]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플로리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여동기가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박종임과 안민주(2015)는 노인의 파크골프 참여동기가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노년기의 여가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파크골프는 노인들에게 여가만족을 통해 생활만족을 이끌 수 있는 놀이문화임을 강조하였다[31]. 신양호와 조규청(2015)은 실버세대 파크골프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 및 참여지속의도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32]. 최용석 등(2018)은 운동 참여동기, 플로우 경험, 참여만족,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실버세대의 여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파크골프는 실버세대에게 여가만족을 통해 생활만족을 이끌 수 있는 여가문화임을 강조하였다[33]. 이지혜(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실버세대의 파크골프 참여동기 중 '즐거움 추구'와 '건강추구'가 심리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즐거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참여동기의 '기술개발', '건강추구', '즐거움 추구'가 심리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34].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 2를 설정한다.

[가설 2] 참여동기는 플로리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참여동기의 매개효과

남정훈과 강지훈(2010)은 여가 스포츠 활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자율성은 무동기와 내적 동기에 정적 영향을, 유능성은 외적 동기, 내적 동기 및 무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였다[27].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 3을 설정한다.

[가설 3]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참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Baron & Kenny(1986)는 어떤 변수가 매개변수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35]. 첫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a), 두 번째 단계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b). 세 번

째 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c).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a와 b 두 가지면 매개효과와의 전제조건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36].

가설 3은 기본심리욕구가 참여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으로 (a)에 해당한다. 가설 2는 참여동기가 플로리싱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으로 (b)에 해당한다. 가설 2와 가설 3을 바탕으로 참여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 4를 설정한다.

[가설 4]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참여동기를 매개로 하여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진지한 여가의 조절효과

진지한 여가 참여자는 여가활동을 자기 삶의 일부와 환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며, 높은 열정과 몰입을 통해 여가활동에 임하므로 진지한 여가 참여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37]. Kraus(2014)는 진지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만족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며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받는 것을 밝혀내었다[38]. 사람들이 진지한 여가에 참여할 때는 삶의 만족, 의미와 목적, 행복, 삶의 질, 건강, 긍정적인 감정 경험이 증가한다[39]. 진지한 여가를 통하여 기술과 지식이 향상되면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이 제고되고 그 결과 웰빙이 개선된다[40]. 또한 특정한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삶에 의미와 목적을 제공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인지된 웰빙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40]. 국내에서도 황선환 등(2011)은 진지한 여가가 성인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24]. 안병욱(2013)은 여가활동을 하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가활동 참여자들의 진지한 여가가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41]. 김형훈(2013)은 진지한 여가와 여가몰입, 행복감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진지한 여가를 통한 몰입의 경험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42]. 방신용 등(2015)은 진지한 여가 참여자들의 적극적 태도와 자세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43]. 특히 파크골프를 대상으로 이현진 등(2022)은 진지한 여가로서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삶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44]. 김준(2012)은 여가스포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 요인인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이 진지한 여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45].

이는 내적으로 동기화된 여가스포츠 참가자들이 일상적 여가가 아닌 진지한 여가로서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진지한 여가는 기본심리욕구나 주관적 웰빙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가 대부분이지만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도 있다. 김병훈과 서광봉(2015)은 진지한 여가 참여자가 여가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체험을 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나 상황적, 금전적, 입지적, 시간적 제약과 같이 부정적인 체험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46]. 참여자가 높은 수준의 진지한 여가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몰입하게 되면 운동중독을 경험하거나 가족과 여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47].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 효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작하면, 진지한 여가로서 파크골프에 참여하더라도 자신의 기본심리욕구와 적합해야만 플로리싱이 증대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플로리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진지한 여가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 5를 설정한다.

【가설 5】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은 진지한 여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3 측정도구

기본심리욕구는 지정미(2017)가 골프에 적합하도록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분하여 개발한 측정도구 [48]를 파크골프 이용자가 답하기에 적합하도록 중복되는 문항을 통합하여 수정한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율성은 자발적 참여, 생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 스스로 결정, 유능성은 잘 친다는 평가를 받음, 기술 습득의 빠름, 소질이 있다는 인식, 관계성은 동반자와의 관계 개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 동반자에 대한 태도 향상 등으로 구성하였다.

참여동기는 정용각 등(2021)이 개발한 수정된 골프참여 동기척도(GPMS: Golf Participation Motiv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49]. GPMS는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파크골프 이용자가 답하기에 적합하도록 중복되는 문항을 통합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의 인기를 반영하여 연구자가 하나의 문항을 추가하여 12문항으로 조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내적 동기(파크골프가 재미있어서 친다, 파크골프를 치면 즐겁다), 힐링동기(넓은 그린 위를 걷는 것이 좋다, 파크골프장에 나가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건강동기(건강을 위해서 친다,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 친다), 교류동

기(새로운 사람과 교류하기 위해서 친다, 친구나 지인들과의 친목을 위해서 친다), 경쟁동기(파크골프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 친다, 내기에서 잘하니까 친다), 무동기(파크골프는 나에게 안 맞다, 파크골프를 왜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 등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진지한 여가는 김미량(2009)이 개발하고 김미량(2015)이 재정립한 진지한 여가 척도(SLSII)를 사용하였다[50,51]. 이 척도는 야구, 테니스, 스쿼시, 마라톤, 배드민턴 등과 같은 여가스포츠 활동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파크골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파크골프 이용자가 답하기에 적합하도록 중복되는 문항을 통합하여 총 6개의 하위요인과 1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인내(파크골프에는 꾸준히 참여한다, 곤란한 일이 생겨도 이겨낸다), 여가 전문성(전문 지식이 있다, 경력을 주위에서는 인정해준다), 개인적 노력(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평시에도 노력한다, 관련 지식을 습득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지속적 혜택(성취감을 준다, 내 삶에 여유가 생겼다), 여가 정체성(주변사람에게 파크골프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내 삶의 중심이다), 독특한 기풍(열성적인 사람에 대하여 공감한다, 동질감을 느낀다).

주관적 웰빙과 심리적 웰빙을 통합한 개념으로 Seligman은 플로리싱을 제안하고 구성요인인 긍정적 정서, 몰입, 긍정적 관계, 의미, 성취 등으로 각 요인의 앞 철자를 따서 'PERMA'로 명명하였다[52]. Butler & Kern(2016)은 Seligman의 PERMA를 측정하는 PERMA-Profiler 문항을 개발하였다[53]. 본 연구에서는 Butler & Kern(2016)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 긍정적 정서(기쁨, 긍정적인 기분, 삶에 만족감), 몰입(일에 몰두, 일에 재미와 흥미, 시간 가는 줄 모름), 관계(주위의 도움과 지지, 주위의 사랑, 인간관계에 만족), 의미(의미있고 목적 있는 삶, 일의 가치, 삶의 방향성), 성취(설정된 목표를 달성,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 책임을 충실히 이행)의 5가지 하위요인과 전반적 행복 1문항(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통계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을 측정하였다. 성별변수는 여자는 0, 남자는 1인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경력변수는 골프를 친 경력기간을 연 단위로 측정한 연속변수이다. 연령은 10세를 간격으로 측정한 연속변수이다. 연령변수는 10대는 1, 20대는 2, 70대는 7 등으로 측정한 연속변수이다.

3.4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광주, 전남 지역의 파크골프에 한정하였다. 파크골프 이용자를 위해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여 40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기간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400명에 도달하면서 종료하였다. 설문지 회수 후 연구자가 직접 결측치가 없도록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불성실한 18개 설문지를 제외하고 382개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199명으로 52.1%를 차지하고 183명인 남성보다 비중이 높았다. 경력은 1-5년이 180명으로 47.2%의 비율을 보이며 10년을 초과하는 응답자도 11명(2.9%)이었다. 경력기간의 평균은 3.4년이었다. 연령에서는 60대가 187명으로 49.0%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다. 60대 이상을 계산하면 253명으로 66.3%를 차지하면서 3분의 2에 이르고 있다. 직업은 주부가 117명(30.6%)로 가장 많이 파크골프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영업이 95명(24.9%)으로 그다음 순위를 보인다. 이를 통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파크골프 이용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거주지역은 목포시가 229명(59.9%)을 차지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신뢰성 검정은 Cronbach's α 를 이용하고 Nunnally (1978)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인 0.7을 상회하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54]. 타당성 검정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수행했다. 가설 검증은 Hayes가 개발한 PROCESS macro 모델을 사용하였다. Hayes(2018)는 최종 모델만으로 개별 효과가 충분히 분석될 수 있다고는 하였으나[55],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접효과를 PROCESS macro를 사용하지 않고 회귀분석으로써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 모델 4로써, 조절효과는 PROCESS macro 모델 1로써 검증하였다.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오면 조절효과의 양상은 그래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 기준을 5% 이하의 유의확률로 설정한다.

4. 분석 결과

4.1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3개 추출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이 모두

기준치인 0.4를 초과하였다. 설명된 총 분산은 74.719%이었다. 3개 요인은 선행연구와 일치하게,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의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 는 자율성 .751, 유능성 .885, 관계성 .816로 산출되었다.

참여동기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3개 추출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이 모두 기준치인 0.4를 초과하였다. 설명된 총 분산은 65.764%이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내적동기, 힐링동기, 건강동기, 교류동기, 경쟁동기, 무동기 등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내적동기, 힐링동기, 건강동기, 교류동기가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내재적 동기로 분류하고 경쟁동기는 외재적 동기로 분류하였다. 무동기는 파크골프를 통한 플로리싱의 향상을 연구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Cronbach's α 는 내재적 동기 .882, 외재적 동기 .837로 산출되었다.

진지한 여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2개 추출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이 모두 기준치인 0.4를 초과하였다. 설명된 총 분산은 65.261%이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인내, 개인적 노력, 지속적 혜택, 여가 정체성, 독특한 기풍 등의 5개의 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고, 여가 전문성이 단독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의 누적분산비율이 54.355%로 나와 50%를 초과하고 있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누적 설명 분산이 보통 50-6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Hair et al.(2010)의 견해[56]를 수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의 합산점을 진지한 여가의 점수로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는 .903이었다.

플로리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3개 추출되었으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5개의 하위요인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추출되지 않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의 누적분산비율이 55.930%로 나와 50%를 초과하고 있어서 진지한 여가의 경우와 같이 모든 요인의 합산점을 플로리싱의 점수로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는 .947이었다.

4.2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382명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산정한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 variable | mean | s.e. | skew | kurtosis |
|----------|-------|-------|--------|----------|
| AUTO | 4.260 | 0.663 | -0.784 | 0.416 |
| COMP | 3.587 | 0.856 | 0.033 | -0.515 |
| RELATE | 4.225 | 0.621 | -0.490 | -0.323 |
| INMO | 4.250 | 0.559 | -0.459 | -0.325 |
| EXMO | 2.616 | 0.914 | 0.416 | -0.202 |
| SL | 3.762 | 0.619 | -0.125 | -0.436 |
| FLOUR | 4.002 | 0.578 | -0.216 | 0.003 |

note: AUTO(autonomy), COMP(competence), RELATE(relatedness); INMO(internal motive), EXMO(external motive); SL(serious leisure); FLOUR(flourishing)

측정도구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정규분포인지를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로써 평가하였다. 왜도는 분포의 비대칭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 정규분포, t 분포와 같이 대칭인 분포의 경우 왜도가 0이다. 첨도는 분포의 꼬리 부분의 길이와 중앙 부분의 뾰족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량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 통계량이 2.3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Lei & Lomax(2005)[57]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정규분포의 가정이 수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변수 중 자율성과 관계성의 평균값이 4.2 수준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고 유능성은 상당히 낮은 3.587의 평균값을 보인다. 참여동기는 내재적 동기의 평균값이 4.250으로 나타나 외재적 동기의 2.61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인다. 진지한 여가의 평균값은 3.762, 플로리싱의 평균값은 4.002로 나타나 높은 수준을 보인다.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에 요약되어 있다. 플로리싱은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참여동기(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진지한 여가와 모두 1% 수준에서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Table 2. Correlations

| | COMP | RELATE | INMO | EXMO | SL | FLOUR |
|--------|--------|--------|--------|--------|--------|--------|
| AUTO | .479** | .483** | .535** | .205** | .477** | .520** |
| COMP | | .426** | .393** | .407** | .548** | .453** |
| RELATE | | | .629** | .148** | .522** | .523** |
| INMO | | | | .251** | .629** | .582** |
| EXMO | | | | | .371** | .294** |
| SL | | | | | | .711** |

note 1) * p<0.05, ** p<0.01

2) AUTO(autonomy), COMP(competence), RELATE(relatedness); INMO(internal motive), EXMO(external motive); SL(serious leisure); FLOUR(flourishing)

이는 독립변수인 기본심리욕구와 매개변수인 참여동기, 진지한 여가가 종속변수인 플로리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그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본심리욕구와 참여동기 간에도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계수를 보이며 참여동기와 진지한 여가 간에도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계수를 보이는데, 이도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4.3 가설의 검증

4.3.1 가설 1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모든 변수의 VIF값을 산출한 결과 모두 임계치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다중공선성 문제는 해결되었다.

기본심리욕구가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결과를 Table 3에 요약하였다.

통제변수들을 투입한 모델 1에서는 경력변수가 5%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플로리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132, p<.05$). 이를 통하여 골프를 친 경력이 길수록 플로리싱이 향상된다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독립변수를 추가한 모델 2에서는 자율성($\beta=.280, p<.01$), 유능성($\beta=.166, p<.01$), 관계성($\beta=.307, p<.01$) 등은 1% 유의수준에서 플로리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본심리욕구와 플로리싱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없지만, 심리적 안녕감[9,20,27,39], 행복감[28] 등과 같이 플로리싱과 유사한 개념을 적용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는 결과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가 된다.

Table 3. Test of Hypothesis 1

| variable | | model 1 | model 2 |
|-------------------------|--------|---------|----------|
| control | GENDER | 0.000 | -0.034 |
| | CAREER | 0.132* | 0.046 |
| | AGE | -0.097 | -0.056 |
| independent | AUTO | | 0.280** |
| | COMP | | 0.166** |
| | RELATE | | 0.307** |
| Adjusted R ² | | 0.039 | 0.390 |
| F | | 4.578* | 29.044** |

note 1) * p<0.05, ** p<0.01

2) AUTO(autonomy), COMP(competence), RELATE(relatedness)

4.3.2 가설 2의 검증

참여동기가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결과가 Table 4에 요약되었다. 독립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보면 내재적 동기($\beta=.550, p<.01$), 외재적 동기($\beta=.130, p<.01$)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플로리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여동기와 플로리싱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참여동기와 생활만족 간의 유의한 정(+)의 관계를 검증한 다수의 선행연구[31,58,59]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가 된다.

Table 4. Test of Hypothesis 2

| variable | | model 1 | model 2 |
|-------------------------|--------|---------|----------|
| control | GENDER | 0.000 | 0.010 |
| | CAREER | 0.132* | 0.103* |
| | AGE | -0.097 | -0.112* |
| independent | INMO | | 0.550** |
| | EXMO | | 0.130** |
| Adjusted R ² | | 0.039 | 0.385 |
| F | | 4.103* | 35.112** |

note 1) * p<0.05, ** p<0.01
2) INMO(internal motive), EXMO(external motive).

4.3.3 가설 3의 검증

기본심리욕구가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결과를 Table 5에 요약하였다.

Table 5. Test of Hypothesis 3

| variable | | dependent | |
|-------------------------|--------|-----------|----------|
| | | INMO | EXMO |
| control | GENDER | -0.107* | 0.038 |
| | CAREER | -0.059 | 0.001 |
| | AGE | 0.082 | -0.029 |
| independent | AUTO | 0.269** | 0.184* |
| | COMP | 0.092* | 0.395** |
| | RELATE | 0.464** | 0.124* |
| Adjusted R ² | | .475 | .390 |
| F | | 39.354** | 29.044** |

note 1) * p<0.05, ** p<0.01
2) INMO(internal motive), EXMO(external motive);
AUTO(autonomy), COMP(competence), RELATE(relatedness).

내재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변수이다($\beta=-.107, p<.05$). 이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내재적 동기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가 내재적 동기인 경우($F=39.354, p<.01$)와 외재적 동기인

경우($F=29.044, p<.01$), 모두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는 참여동기(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성요인인 기본심리욕구가 내재적 동기를 강화시킨다는 자기결정이론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요인이 외재적 동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파크골프 이용자의 경우 참여동기를 제고하는 요인으로서 기본심리욕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설 3은 지지가 된다.

4.3.4 가설 4의 검증

기본심리욕구와 플로리싱 간 관계에서 참여동기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모델 4를 이용하였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95%의 신뢰구간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첫째,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이 독립변수이고, 참여동기 중 내재적 동기가 매개변수일 때, 95%의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1509)과 상한값(.2575)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자율성이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내재적 동기가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자율성이 독립변수이고, 외재적 동기가 매개변수일 때, 95%의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0097)과 상한값(.0507)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자율성이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치는 데도 외재적 동기가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기본심리욕구 중 유능성이 독립변수일 때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모두가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95%의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본심리욕구 중 관계성이 독립변수인 경우 참여동기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모두가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가 된다. 이상의 결과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수록 플로리싱이 개선되지만 참여동기의 충족은 플로리싱 개선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파크골프 이용자나 파크골프장 경영자의 입장에서 참여동기 충족에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파크골프 이용자의 플로리싱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able 6. Test of Mediating effect

| variable | | Effect | Boot SE | Boot LLCI | Boot ULCI |
|----------|------|--------|---------|-----------|-----------|
| inde. | med. | | | | |
| AUTO | INMO | .2025 | .0272 | .1509 | .2575 |
| | EXMO | .0278 | .0105 | .0097 | .0507 |
| COMP | INMO | .1385 | .0185 | .1033 | .1760 |
| | EXMO | .0318 | .0135 | .0077 | .0601 |
| RELATE | INMO | .2497 | .0337 | .1889 | .3182 |
| | EXMO | .0229 | .0110 | .0031 | .0463 |

note: AUTO(autonomy), COMP(competence), RELATE(relatedness); INMO(internal motive), EXMO(external motive).

4.3.5 가설 5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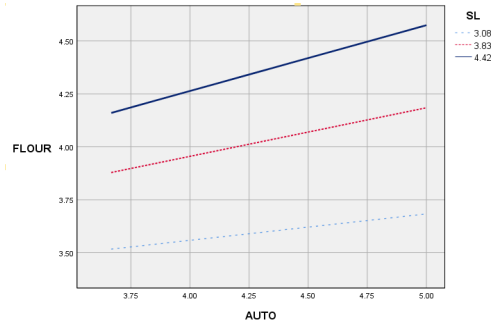
기본심리욕구와 플로리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진지한 여가가 가지는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는 Table 7에 요약하였다. 유의한 상호작용항 변수는 '자율성*진지한 여가'이다. 따라서 자율성이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지한 여가가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Table 6. Test of Mediating effect

| variable | | 1 | 2 | 3 |
|-------------------------|-----------|-----------|-----------|-----------|
| control | GENDER | -.0123 | .0008 | .0012 |
| | CAREER | .0022 | -.0028 | .0003 |
| | AGE | -.0636* | -.0683** | -.0731* |
| independent | AUTO | -.3052 | | |
| | COMP | | -.1841 | |
| | RELATE | | | -.1162 |
| moderator | SL | -.0288 | .3985** | .2134 |
| interaction terms | AUTO*SL | .1394** | | |
| | COMP*SL | | .0641 | |
| | RELATE*SL | | | .0836 |
| Adjusted R ² | | .5688 | .5278 | .5524 |
| F | | 82.4327** | 69.8603** | 77.1366** |

note 1) * p<0.05, ** p<0.01
2) AUTO(autonomy), COMP(competence), RELATE(relatedness); INMO(internal motive), EXMO(external motive); SL(serious leisure).

유의한 조절효과가 존재한다고 검증된 경우에 조절효과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Fig. 2의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단 이러한 분석은 가설 검증과는 무관하고 조절효과 방향이나 크기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Fig. 2에서 보면 진지한 여가의 수준이 낮은 파크골프 참여자라도 자율성이 증대하면 플로리싱도 증대한다. 단 진지한 여가의 수준이 높은 참여자는 플로리싱 증대 폭이 더 크다. 따라서 진지한 여가가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ote: AUTO(autonomy), SL(serious leisure); FLOUR(flourishing).

Fig. 2. Moderating effect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로 들어서고 있는 파크골프가 참여자들의 플로리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기결정이론을 적용하여 기본심리욕구와 참여동기가 직접 및 간접적으로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진지한 여가의 수준에 따라 기본심리욕구가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도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설문지 조사방법을 채택하고 광주·전남지역의 파크골프 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성실한 답변을 한 382부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의 세 가지 하위변수로 구성하고, 참여동기는 선행 연구에 제시한 내재적 동기, 힐링동기, 건강동기, 교류동기 등을 내재적 동기로, 경쟁동기는 외재적 동기로 분류하였다. 진지한 여가와 플로리싱은 단일 변수로 측정하였다. 회귀분석에 대한 가정을 검정한 결과, 독립성과 다중공선성에서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실증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크골프 참여자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은 플로리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참여동기인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도 모두 플로리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참여자의 플로리싱 개선을 위해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나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본심리욕구가 충족이 되면 참여동기도 강화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기본심리욕구가 내재적 동기를 강화시킨다는 자기결정이론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기본심리욕구가 외재적 동기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참여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기본심리욕구의 유형별, 참여동기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참여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플로리싱을 개선하지만 참여동기에 대한 촉진을 통하여 플로리싱 개선의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본심리욕구와 플로리싱 간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여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율성의 경우 유의한 조절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지한 여가 활동으로 파크골프를 대하는 참여자에게는 유능성이나 관계성보다는 자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파크골프 경영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조절효과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를 작성한 결과, 진지한 여가의 수준이 높은 참여자일수록 플로리싱 증대 폭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지한 여가가 플로리싱 개선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크골프 활동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생활만족, 참여만족, 여가만족 등에 초점을 둔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변수들은 파크골프 이용자의 혜택을 부분적으로만 측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파크골프 이용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단순히 긍정 정서를 가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변수를 포괄할 수 있는 플로리싱 개념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분석함으로써, 추후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둘째, 진지한 여가의 개념은 의욕적인 여가활동 형태와 수준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파크골프는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용자들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면 인내심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파크골프 이용자에게 최초로 진지한 여가 개념을 적용하여 연구하였고 그 결과 진지한 여가가 파크골프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여가 활동에 역지로 참여하는 경우는 그 효과를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파크골프의 경우는 일정한 기술 확보와 꾸준한 참여가 있어야 이용자가 기대하는 플로리싱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적이고 유능하며 우호적인 대인관계를 원하는, 즉 자기결정성의 수준이 높은 참여자일수록 적극성이 높아지고 결과도 나아질 것이며 그 결과 플

로리싱이 높아질 것이다.

점점 노령화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남녀노소별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레저라는 점에서 파크골프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정책 및 경영상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파크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연 손상은 불가피하다. 그러한 손상에 대한 보완책이 정책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법·제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파크골프장을 임야 등에 조성하도록 법적 제도의 기준이 마련된다면 효율적인 국토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민영으로 파크골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머무는 농촌관광휴양단지에 회원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서의 연계가 가능한 관광 효과,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새로운 테마파크와 연계한 개발 효과, 관광 명소화를 통한 세수 확대 및 지역특산물 홍보의 효과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파크골프 운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크골프장 유료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파크골프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민영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료화나 민영화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것과 동반되어야 시민의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셋째, 파크골프장의 부대 시설이 질적, 양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호텔과 클럽하우스 시설을 갖춘 파크골프장 건설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호텔과 클럽하우스 시설을 갖춘 파크골프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문항을 포함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문항의 평균값이 3.63 (표준편차 1.088)으로 나와 파크골프 이용자의 호응도가 높았다. 넷째 스크린 파크골프의 확대이다. 스크린 파크골프는 스크린을 통해 규칙, 에티켓 등의 이론 교육이 쉽고, 시간적 제약이 적어, 공동체의 친목 도모 및 여가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파크골프 참여자의 플로리싱 개선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었지만 많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일반화를 제한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한계이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편향된 자료가 수집되어 일반화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반영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연구 설계와 관련된 한계이다. 본 연구는 산과 비용의 한계로 인하여 파크

골프 이용자의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인 중 일부만을 분석하였다. 다양하게 변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분석할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L. Mansfield, N. Daykin, T. Kay, T. "Leisure and wellbeing", *Leisure Studies*, Vol.39, No.1, pp.1-10, 2020.
DOI: <https://doi.org/10.1080/02614367.2020.1713195>
- [2] L. S. Anderson, L. A. Heyne, "Flourishing through leisure and the upward spiral theory of lifestyle change",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Vol.50, No.2, pp.118-137, 2016.
DOI: <https://doi.org/10.18666/TRJ-2016-V50-12-7333>
- [3] P. Heintzman, "Spiritual and Religious Outcomes of Leisure Travel and Tourism: A Framework for Synthesizing Empirical Research", Available From: https://scholarworks.umass.edu/ttra/2020/research_papers/36 (accessed April, 8, 2024)
- [4] L. S. Anderson, "Flourishing through leisure: An inclusive, ecological, and strengths-based approach", *Society and Leisure*, Vol.44, No.2, pp.198-207, 2021.
DOI: <https://doi.org/10.1080/07053436.2021.1935411>
- [5] J. H. Jang, J. T. Lim, J. E. Lee, "The Effects of Park Golf Participants' Health Care Leisure on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Happiness", *Journal of golf studies*, Vol.14, No..2, pp.143-153, 2020.
DOI: <https://doi.org/10.34283/ksgs.2020.14.2.11>
- [6] J.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Self-Concept and Social Happiness on Park Golf in the Disabled",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18, No.2, pp.85-102, 2009.
- [7] C. S. Shim, J. Y. Huh,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n Park Golf Participation in Old",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5, No.2, pp.189-196, 2006.
- [8] S. A. Lee, "An Effect of Long-Term Park Golf Exercise of the Aged with Physical Disabilities on Stress Hormone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14, No.2, pp.23-40, 2010.
- [9] R. M. Ryan, E. L. Deci,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25, No.1, pp.54-67, 2000.
DOI: <https://doi.org/10.1006/ceps.1999.1020>
- [10] E. L. Deci, R. M. Ryan,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19, No.2, 1985.
DOI: [https://doi.org/10.1016/0092-6566\(85\)90023-6](https://doi.org/10.1016/0092-6566(85)90023-6)
- [11] E. L. Deci, R. M. Ryan,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25, No.1, pp.54-67, 2000.
DOI: <https://doi.org/10.1006/ceps.1999.1020>
- [12] M. S. Lee, H. Y. Kang, C. W. Lee, "The Relationship among Serious Leisure, Leisur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for Older Korean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56, No.1, pp.503-515, 2017.
- [13] T. H. Kim, S. H. Hwang, "Serious Leisure Cost based on the Degree of Serious Leisure",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Vol.41, No.3, pp.19-29, 2017.
DOI: <http://dx.doi.org/10.26446/kilrp.2017.09.41.3.19>
- [14] R. A. Stebbins, "The serious leisure perspective: A synthesis", Springer Nature, 2020.
- [15] M. L. Kim, D. H. Lee, "Identifying the Difference in Serious Leisure according to the Spor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Badminton Participan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No.87, pp.175-184, 2022.
DOI: <https://doi.org/10.51979/KSSLS.2022.01.87.175>
- [16] C. L. Keyes, J. Annas, "Feeling good and functioning well: Distinctive concepts in ancient philosophy and contemporary scienc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Vol.4, No.3, pp.197-201, 2009.
DOI: <https://doi.org/10.1080/17439760902844228>
- [17]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95, No.3, pp.542-575, 1984.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95.3.542>
- [18]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7, No.6, pp.1069-1081, 1989.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7.6.1069>
- [19] H. M. Kang, "The Application of the Flourishing Competency Program for Infant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20, No.5, pp.147-175, 2016.
- [20] W. Y. Chung, "Relationship Between Basic Psychology Need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Participation of University Students Class on Cultural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No.50, pp.573-581, 2012.
DOI: <https://dx.doi.org/10.51979/KSSLS.2012.12.50.573>
- [21] D. W. Kim, "The Effect of Park Golf Participation o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Ego 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17, No.1, pp.75-82, 2019.
- [22] J.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Expectancy and Stress/Well-Being: An Application of Motivational States Theory",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2, No.2, pp.325-345, 2007.
DOI: <https://dx.doi.org/10.17315/kihp.2007.12.2.003>

- [23] S. H. Hwang, M. J. Lee, "Relationships between serious leisure and recreation specialization: focused on skier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8, No.6, pp.393-402, 2009.
- [24] S. H. Hwang, M. L. Kim, Y. J. Lee, "Investigating the Mediation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Leisure and Perceived Quality of Life", *Journal of Leisure Studies*, Vol.9, No.2, pp.1-16, 2011.
DOI: <http://dx.doi.org/10.22879/slos.2011.9.2.1>
- [25] M. L. Kim, S. H. Hwang, "Relationships between Serious Leisure and Degree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Vol.40, No.1, pp.69-81, 2016.
- [26] R. A. Stebbins,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McGill-Queen's Press-MQUP, 1992.
- [27] J. H. Nam, J. H.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itive attitud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psychological needs and motivation of leisure sports participants",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Vol.34, No.2, pp.95-109, 2010.
- [28] H. J. Jin, D. D. Kim, J. Y. Park, "The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Ego-Resiliency on the Subjective Happiness in Dance Sports Club Members",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Vol.22, No.5, pp.537-548, 2013.
- [29] J. Y. Ch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elf-Esteem,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Happiness for Dance Perceived by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Convergence Science*, Vol.12, No.7, pp.105-119, 2023.
DOI: <http://dx.doi.org/10.24826/KSCS.12.7.7>
- [30] B. H. Park,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Needs,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Happiness of Silver Generation Park Golf Participant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21, No.3, pp.205-216, 2023.
DOI: <https://doi.org/10.46669/kss.2023.21.3.019>
- [31] J. L. Park, M. J. An, "The Effect of the Elderly Park Golf Participant's Participation Motivation on the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olf Studies*, Vol.9, No.2, pp.1-12, 2015.
<https://www.earticle-net-ssl.libproxy.snu.ac.kr/Article/A259851>
- [32] Y. H. Shin, K. C. Cho,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Intension in Participants of Park Golf for the elderly Generation",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Vol.24, No.3, pp.453-464, 2015.
- [34] J. H. Lee, "The Effect of New Silver Generations' Park Golf Participation Motivation on Leisur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Happiness", *Journal of Golf Studies*, Vol.14, No.1, pp.213-223, 2020.
DOI: <https://dx.doi.org/10.34283/ksgs.2020.14.1.18>
- [35]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1173-1182, 1985.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36] A. F. Hayes, "An index and test of linear moderated mediatio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50, No.1, pp.1-22, 2015.
DOI: <https://doi.org/10.1080/00273171.2014.962683>
- [37] J. H. Kim, T. W. Kim, S. H. Hwang, "Valid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Leisure and Serious Leisure Cost", *Korean Journal of Convergence Science*, Vol.13, No.1, pp.33-46, 2024.
DOI: <https://dx.doi.org/10.24826/KSCS.13.1.3>
- [38] R. Kraus, "Becoming a belly dancer: Gender, the life course and the beginnings of a serious leisure career", *Leisure Studies*, Vol.33, No.6, pp.565-579, 2014.
DOI: <https://doi.org/10.1080/02614367.2013.833284>
- [39] H. B. Tian, Y. J. Qiu, Y. Q. Lin, W. T. Zhou, C. Y. Fan, "The role of leisure satisfaction in serious leis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from Chinese marathon runners", *Frontiers in Psychology*, Vol.11, Nov. 2020. Available From:
<https://doi.org/10.3389/fpsyg.2020.581908> (accessed April, 8, 2024)
- [40] Y. Iwasaki, "Contributions of leisure to "meaning-making" and its implications for leisure studies and services", *Annals of Leisure Research*, Vol.20, No.4, pp.416-426, 2017.
DOI: <https://doi.org/10.1080/11745398.2016.1178591>
- [41] B. W. A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Identity and Leisure Attitude among Leisure Activity Participant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11, No.1, pp.145-154, 2013.
- [42] H. H. Kim,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mong Serious Leisure, Leisure Flow and Happines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52, No.2, pp.411-420, 2013.
- [43] S. W. Bang, H. D. Woo, S. H. Hwang, "Indeed, Do Specialized and Serious Leisure Improve the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Vol.39, No.1, pp.1-15, 2015.
- [44] H. J. Lee, R. Lee, J. M. Heo, "The Meaning of Park-Golf Experience as Serious Leisure of Older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61, No.3, pp.177-192, 2022.
DOI: <https://doi.org/10.23949/kjpe.2022.5.61.3.13>
- [45] J. Kim, K. M. Le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of the Self-Determination,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Serious Leisure, and Exercise Adherence of the Participants in Leisure Sports Activity",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l.25, No.2, pp.85-107, 2012.
DOI: <https://doi.org/10.22173/jkss.2012.25.2.85>
- [46] B. H. Kim, K. B. Suh, "Qualitative Study of the Serious

- Leisure Experience for Motorcycle Leisure Participants”,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Vol.1, No.1, pp.127-152, 2015.
- [47] H. W. Han, H. J. Hong, “The Influence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on Sport Commitment and Exercise Addiction of Serious Leisure Participants in Tennis Community”,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Vol.28, No.3, pp.110-113, 2014.
- [48] J. M. Ji, “The Verification on the Relationship Model among Golf Betting Desire, Golf Experienc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for the Middle-aged Golfers”, Doctoral thesi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san, Korea, 2016.
- [49] Y. G. Jung, C. W. Kim, J. S. An, “The Construct-Related Validation and Predicting Self-Determination Behavior on Revised Golf Participation Motivation Scale”, *Journal of Golf Studies*, Vol.15, No.4, pp.13-29, 2021. DOI: <https://doi.org/10.34283/ksgs.2021.15.4.2>
- [50] M. L. Kim, “Development for serious leisure scale(SL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8, No.4, pp.397-408, 2009.
- [51] M. L. Kim, “Reinventory of the SLS: development of SLSII”,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54, No.2, pp.313-322, 2015.
- [52] M. Seligman, “Flourish: Positive psychology and positive interventions”,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Vol.31, No.4, pp.1-56, 2010.
- [53] J. Butler, M. L. Kern, “The PERMA-Profiler: A brief multidimensional measure of flourish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Vol.6, No.3, pp.1-48, 2016. DOI: <https://doi.org/10.5502/ijw.v6i3.526>
- [54] J. C. Nunnally, “An overview of psychological measurement”, *Clinical diagnosis of mental disorders: A handbook*, pp.97-146, 1978.
- [55] A. F. Hayes,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Vol.85, No.1, pp.4-40, 2018. DOI: <https://doi.org/10.1080/03637751.2017.1352100>
- [56] J. F. Hair, C. B. William, J. B. Barry, R. E. Anderson, “Multivariate Data Analysis(7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2010.
- [57] M. Lei, R. G. Lomax, “The effect of varying degrees of nonnormality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12, No.1, pp.1-27, 2005. DOI: https://doi.org/10.1207/s15328007sem1201_1
- [58] H. R. So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nt motivation and flow experience, participant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of members in females’ marathon association in relation to the marathon as leisure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Vol.33, No.3, pp.205-216, 2009.
- [59] H. Yoon, W. S. Lee, K. B. Kim, J. Moon, “Effects of

leisure participation on life satisfaction in older Korean adults: A pane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7, No.12, 4402, 2020. DOI: <https://doi.org/10.3390/ijerph17124402> (accessed April, 8, 2024)

김 보 성(Bo-Sung Kim)

[정회원]



- 2000년 8월 : 목포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관광학석사)
- 2024년 2월 :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과 (박사수료)
- 2024년 5월 ~ 현재 : (주) 푸르미르 관광개발 대표
- 2022년 3월 ~ 현재 : 전남투데이 신문 방송 취재부장

<관심분야>

관광개발, 웰빙, 파크골프 투어관광, 파크골프장 경영